해운정사 “생명 위협하는 교통대란 NO!”

사찰 앞 고층 아파트 건립 교통대란 등 우려 논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주석 사찰인 해운정사 앞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 지상 39층 높이 아파트 3,030가구가 들어선다. 하지만 지자체 측은 진입 도로 확충 계획이 없어 교통대란 및 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돼 논란이다.

해운정사는 2월 8일 해운정사 경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건립은 교통 대란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민 의사를 무시한 투기성 고층 아파트로, 조망권과 수행환경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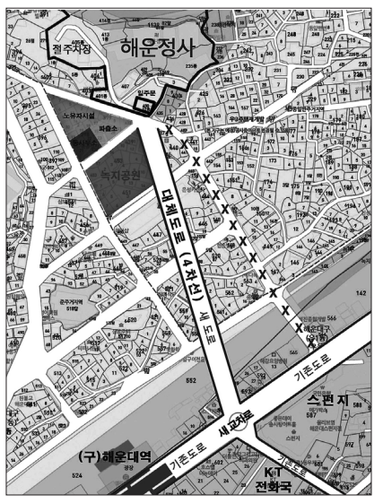
해운정사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재개발은 특정 집단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 활동임을 강조했다.

해운정사 총무 능원 스님은 “현재 조합안에 따라 좁은 2차선 기존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과 1만3000여 신도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일이다. 수많은 공사 차량이 드나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3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게 교통 대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능원 스님은 “기존 도로로 접근하기 전 만나는 삼거리를 사거리 교차로로 만들고, 새 도로 4차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4차선 도로는 그동안 겪어 왔던 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적 효과도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해운정사 총무 능원 스님이 2월 8일 경내에서 공사지역을 바라보며 건설 공사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새 교차로 개설안. 해운정사는 2차선 기존도로(사진 X표시)가 아닌 4차선 진입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도로 폐쇄, 4차선 새도로 답”
사찰 조망 · 일조권 보장 요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주석처
1만3000여 신도 불편 초래 우려

스님은 “새 도로는 해운대 지하철역 사거리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 왕래가 월등히 좋아지고 해운대 시장 방면의 도로와도 연계돼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계획안을 수많은 주민들과 지역 발전 편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수정, 재개발 사업이 투기가 아닌 주민들과 신도들 삶에 도움 될 수 있길 바란다는 취지다.

특히 해운정사는 수행환경수호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능원 스님은 “해운정사는 한국 불교 최고 어른이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대선사께서 주석하시는 종단 주요 사찰이며, 다수의 시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이라며 “전국서 모여든 스님들과 1만3,000여 신도들이 수행 및 신행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계각층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부산 경남 지역 대표사찰”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스님은 “향후 수년 동안 공사 기간 내내 발생할 먼지와 소음은 물론, 거대한 병풍처럼 막아선 아파트로 인해 하루 종일 그림자가 지는 등 수행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재개발조합은 “기존 진입도로 대신 교차로에서 해운정사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안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 조합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힌 상황이다.

조합 측은 “해운정사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해 사찰 바로 앞 2개 동 건물은 39층에서 20층으로 낮추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 · 대만, 대학생들 불심으로 ‘한 마음’

홍법사, 제7회 한국 · 대만 대학생 문화교류 열어

한국과 대만 대학생들이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교류하며 우정을 나눴다.

2월 2~12일 대만 불광대와 남화대 학생 30여명이 한국을 방문했다.〈사진〉 홍법사(주지 심산)는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를 담당하며 매년 대만 대학생들을 초대하고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한국 대학생 불자들 간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해에는 부산대, 동아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계명대 등 19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동참했다.

학생들은 홍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찰 문화 체험과 전통 놀이로 즐거움을 더했으며 해인사, 범어사, 불국사, 석굴암 등 사찰 순례로 전통 불교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산 스님은 “대만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리는 기회와 더불어 문화교류,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과의 우정을 잇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젊은 학생들을 위한 국제 교류와 문화 포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부산聯, 동안거 재가안거 해제

“재가 수행문화 정착 위한 초석으로”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가 2월 8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병신년 동안거 재가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90일 간 수행정진을 통해 성장을 발원한 불자들은 해제법회를 맞아 자신을 돌아보고 도반들의 격려 속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행복을 불러오는 삶에 대한 8가지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법문하며 참가자들에게 수행의 결과로 행복을 얻기를 당부했다.

회장 심산 스님은 “현재 ‘재가 안거’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 단계를 넘어 내용면에서 더욱 충실하고 뿌리 깊게 발전시켜야한다”며 “재가안거는 조계종 신행문화를 바꾸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석자 모두 이 수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병신년 동안거 재가안거에는 홍법사를 비롯한 16개 사찰 및 단체가 참여했으며 2,000여명의 재가 불자들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기장 장안사, 설법전 불사 1000일 기도

“창건주 원효 대사 뜻 펼칠 것”

천년고찰이자 신라 원효 대사가 창건한 부산 기장 장안사(주지 정오)가 설법전을 새롭게 불사한다. 앞으로 원효 대사의 창건정신인 화쟁 사상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기도처는 물론 ‘정법이 살아 숨 쉬는 도량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안사는 2월 20일 오전 10시 경내 대웅전에서 ‘설법전 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1000일 다라니 관음기도’를 입재한다. 법사로 前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참석해 불사를 축하하고 법문을 통해 격려한다.

장안사는 앞으로 33개월 간 관음재일 마다 정기 관음기도로 정진한다. 아울러 불자들과 함께 전국의 33관음 성지를 순례하고 신심을 고취시키겠단 의지다.

하성미 기자

“모든 대구 지역민에 佛法 전파할 것”

2월 1일 대구 대성사 16대 주지 영제 스님 취임

천태종 대구 대성사는 2월 1일 제15대 주지 화산 스님의 이임식과 16대 주지 영제 스님의 진산식을 봉행했다.〈사진〉

육법공양과 함께 개식선언으로 시작된 법요식서 화산 스님은 “이 자리에 동참한 사부대중 모두는 부처님 마음씨를 닮은 착한 불자”라며 “새로 주석한 영제 스님께 더 큰 마음 내어주길 바란다. 매 순간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선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떠나는 것 또한 아름답다”고 전했다.

영제 스님은 “화산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든 대구 지역민이 부처님을 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화롭고 활기찬 대성사 공동체를 다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소임을 열심히 살겠다”고 인사했다.



천태종 원로위원 도산 스님(대구 동대사)은 “화산 스님의 이임과 영제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정유년 새해를 맞아 부지런히 수행하는 천태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성문 스님은 “대성사는 애국불교 · 생활불교 · 대중불교의 원력으로 50여년을 이어온 도심포교 도량이다. 새로 부임하신 영제 스님께서는 대구불교총연합회와 대구지역 불교 발전을 위하여 큰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이 · 취임식에는 천태종 원로위원 도산 스님,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성문 스님,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정효 정사, 대구불교사원연합회장 선지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 이태훈 대구달서구청장, 윤수현 대성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 부임한 주지 영제 스님은 1975년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구인사에 출가, 평창 대흥사 주지를 시작으로 부산 삼양사 · 서울 관문사 · 대전 광수사 등 전국 천태종 주요사찰 주지와 제12 · 13대 천태종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이웃에 자비 나누니 절로 ‘立春大吉’

광주 불교계, 입춘 맞아 소외계층에 쌀 전달

입춘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불자들의 정성이 모였다.

광주 지산동 **연화사**(주지 명신)는 2월 5일 광주전남지역 불교공동모금단체 ‘빛고을나눔나무’에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사진〉 자비의 쌀은 무료어르신식당을 운영 중인 자비신행회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맑고향기롭게 광주본부,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등 불교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광산구 **비전사**(주지 보혜)도 2월 4일 입춘기도를 맞아 신도들이 기도비로 마련한 쌀 2,000kg을 월곡2동사무소 등에 전달했다. 또한 예년과 같이 10여 명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금을 지급했다.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는 동구지역 양로원, 동구동사무소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자비신행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에 쌀 1,000kg을 2월 10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7년 1월 16일 ~ 2월 17일**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